



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...

여러분의 동역으로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. Child Development Project in Mongolia

2017년 1월 ~ 6월 소식입니다.

인생은 자판기가 아니기에...

사람들은 보통 "인생 뜻대로 안돼" 라고 하고 "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농사" 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. 또 저도 자식들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. 하긴 나 자신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을... 잘 알죠? ^^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사랑하셨고,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,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... 정말 짱~!! 이신 듯. ^^

뜬금 없이 이렇게 화두를 던진 이유는, 사역을 하면서 좀 지칠 때가 있어서입니다. 좀 되는가 싶었는데, 그래서 좀 자랑도 했었는데... 다시 돌아보니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 한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? 내가 믿고 걸어 온 이 길이 그 길이 아닌가?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 그런가 봅니다.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나의 길을 점검해 보면 그래 내가 할 일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 하게 됩니다.

● 교육적인 영역에서의 사역



예전엔 과목별 방과후 수업 그리고 다양한 예능 수업을 해왔었는데,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번에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CDP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봉사자를 통해 저학년 아동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, 입시를 앞둔 아동들에게 수능준비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.

안되는 것을 무리해가며 되게 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것은 다음을 기약하고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려 했습니다.

● 하나님의 사랑이 아동과 가정에 전해지길 바라며...

(사진 : 부모세미나, 가정방문, 아동상담 순서로 배열)